

#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전춘성 진안군수, 연이은 국회 방문으로 현안사업 국가사업 반영 노력

전춘성 진안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가사업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 군수는 국회 단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원택, 양경숙, 김수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윤준병, 소병훈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사업과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전 군수는 지난 7일에도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진안군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들이 국회 협력 없이는 해결해 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적극적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단계 주요 건의사업은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100억),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80억), △성수지구 배수개선사업(50억) 등이다.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지역



전춘성 진안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가사업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사진은 이원택 국회의원실 방문 모습)

별로 균등하고 체계적인 등산·트레킹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한 농경지를 정비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춘성 군수는 “녹록치 않은 국가 재정여건으로 인해 정부 예산확보가 힘든 시기지만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내년도 주요 국가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9일 무주군 안성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공동 경작지에서 직접 재배한 김장용 배추 250포기와 무 100개를 부남면 하은의집(장애인 거주시설)에 기부했다.

## 예비 귀농·귀촌인들, 농사 짓고 이웃돕고

###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김장용 배추·무 기부

무주군은 9일 안성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공동 경작지에서 직접 재배한 김장용 배추 250포기와 무 100개를 부남면 하은의집(장애인 거주시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배추와 무는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소해 있는 교육생 11명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교육생 이봉석(경기도 군포시)씨는 “교육 실습을 하면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를 부모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하다”며 “귀농·귀촌의 꿈을 기웠던 무주에서의 시간이 보람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소생은 총 11명으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토마토와 표고버섯 재배시설과 감자,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 경작지에서 영농 재배 기술 교육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농신불 유통을 비롯한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지역 탐사 등 다양한 이론·실습 교육도 받아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무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농교육을 진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실제 귀농·귀촌에 유리한 선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소방서는 9일 대회의실에서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 무주소방서,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무주소방서는 9일 대회의실에서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1번째 실시되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심을 높이고 소방인에게는 자긍심과 기쁨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방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이어졌다. △장관표창

1명(김순정 예방안전팀장), △청장표창 2명(지휘팀 김유현, 예산장비팀 송남섭) △도지사표창 1명(예산장비팀 최영주) 등 11명 소방공무원이 수상하였으며 민간인 표창으로는 △청장 표창 2명(인수환 한국전력 무주지사 팀장, 김상근 채움 건축 대표) △도지사 표창 3명(의용소방대 이호상·김상우, 무주초등학교 이민호 교사) △무주군 수표창 4명 △무주군의장표창 4명 등 13명이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수읍 지역수요맞춤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장수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해 추진하고 있는 ‘장수읍 지역수요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우선공급 101세대(중소기업근로자 50, 신혼부부 21 등), 일반공급 19세대로 총 120세대다.

신청은 이번 달 19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15일 13시부터 16시까지 장수 북동주공아파트 마을회관에서 현장 신청도 진행한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입대조건 등의 자

중단될 위기도 있었으나, 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꾸준히 협의해 2개 사업을 통합·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전북형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도 공모해 도비 14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계면 마을정비형’과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오는 12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도 사업 승인을 받아 2027년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살기 좋은 임대료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군비 부담금 증액이 다소 있더라도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업비 136억원(국비 68억, 도비 41억, 군비 27억)을 투입해 갈거천 3km 정비 및 노후 고령의 재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수=우태만 기자

### 진안군 정천면 갈거지구,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선정

진안군은 9일 정천면 갈거지구(수암마을·무거마을)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최종 선정되면서 4년간 국비 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갈거지구는 지난 2016년, 2019년, 2020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건물 및 농경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침수지역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안군은 2024년까지 총사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센터, 컨설팅지원 교육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진주)는 관내 귀농귀촌 이후 창업한 브랜드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적 경영 및 안정적인 성장을 제안하는 컨설팅지원 교육을 진행했다.

총 4회(11월 매주 수요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 과정은 대상 사업장 브랜드 진단, 브랜드(사업장) 방향 제안 및 제시, 컨설팅과 연계된 전문 영역 연결 제안, 최종 제안 멘토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 총 3개의 브랜드(사업장)를 대상으로 국내 1호 팝파티 플래너인 이승현 경영학 박사를 비롯해 신나희 경영학박사, 하지영 경제학박사가 컨설턴트로 나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봄철 산불 예방 대응 평가 ‘최우수’

진안군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 8일 전라북도청 환경복지국장실에서 기관표창 전수식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악부와 평야 부로 구분해 4개분야 9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했다.

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 및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들밸 찾아가는 산불예방 주민홍보를 추진해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목파쇄기를 이용해 60세 이상 고령농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산불예방에 앞장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3월~5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103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대책 총력전을 펼친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과 임산자 실화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미들밸 소각 없는 녹색미를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홍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